

“나를 따르라, 열방을 향해”

여름 아웃리치 해외 142팀 2,510명, 국내 196팀 4,337명 참가
미디어사역본부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 <온누리신문> 간증 모집



사진은 말라위 음세체마을 아이들.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열기가 뜨겁다. ‘나를 따르라, 열방을 향해’를 주제로 8월까지 이어지는 올해 여름 아웃리치에는 해외 142팀 2,510명, 국내 196팀 4,337명이 참가한다. 구체적으로 성인공동체 해외 51팀 1,027명, 국내 31팀 1,278명, 대학청년부 해외 59팀 959명, 국내 138팀 2,493명, 차세대 해외 32팀 524명, 국내 27팀 566명이 복음 들고 열방으로 떠난다(7월 16일 기준).

해외 아웃리치는 몽골, 스리랑카 등지에서 선교사 블레싱, 마을 전도 등의 사역을 한다. 국내 아웃리치는 진도, 원주 등지에서 교회 보수, 예배 지원 등을 한다.

조연희 자매(SNSCross청년부)는 “몰도바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세워 가시는 현장을 직접 보며 큰 은혜를 받았다”면서 “몰도바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미디어사역본부와 <온누리신문>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영상과 간증을 모집한다.

미디어사역본부는 ‘2026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여름 아웃리치 영상을 60~90초 분량으로 제작해서 8월 31일(월)까지 응모하면 된다. 제작 영상은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스타그램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게시물에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6) 하거나 온누리교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onnuriacts29) 태그 또는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면 된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간증과 사진을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까지 간증(한글 파일 기준 글자 10포인트 크기로 A4용지 1장)과 사진(가로 형태 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wisdom7@onnuri.org)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하용조 목사 소천 15주기

7월 27~31일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



온누리교회가 하용조 목사 소천 15주기 추모행사를 한다. 7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를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추모예배를 드린다.

하용조 목사 소천 15주기 추모예배는 7월 31일(금) 오전 11시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유가족과 온누리교회 리더십을 중심으로 드린다. 찬양, 특송, 설교, 유가족 인사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추모 기간 온누리교회 모든 새벽기도회에서는故 하용조 목사의 생전 설교를 상영한다.

故 하용조 목사는 지난 2011년 8월 2일 향년 65세로 소천했다. 1976년 한국 최초 연예인교회 개척, 1980년 두란노서원 창립, 1985년 온누리교회 창립, 2005년 CGN TV 설립, 2007년 첫 러브소나타 개척, 2010년 NGO 더멋진세상을 창립했다.

/ 홍하영 기자

“QT하고 수박먹자!”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QT하고 수박먹자’가 7월 20일(월)부터 8월 15일(토)까지 이어진다.

‘QT하고 수박먹자’는 차세대

들이 방학 동안 QT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신앙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차세대 QT 교재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 좋아요>, <새벽나라>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CGN 풍당 콘텐츠를 활용한다.

‘QT하고 수박먹자’는 일요일을 제외한 24일 동안 진행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QT’도 4번 있다(필수). 전체 QT를 달성한 차세대들에게는 수박 간식을 선물로 준다. 참여 일수에 따른 차등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 문의: 02-3215-3521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베네수엘라 긴급구호팀 파견

지진 피해 지역 주민 900여 명에게 구호물품 전달



NGO 더멋진세상이 최근 대규모 지진 피해를 본 베네수엘라 라과이라 지역에 긴급구호

팀을 파견했다. 베네수엘라 긴급구호팀 선발대는 지난 7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구

호물품을 포장해서 현지 병원, 어린이 시설, 이재민 쉼터 등에 전달했다. 지원 대상은 미겔 페레스 카레뇨 국립병원과 닥터 도밍고 루시아니 국립병원의 장애인과 부상자 330명, 카리카스 시몬 어린이 시립재단과 라과이라 이재민 쉼터의 아동 500명, 라과이라 노인 쉼터의 노인 70명 등 총 900여 명이다.

후원 계좌: 하나은행 573-910009-09905 (사)더멋진세상

문의: 02-2271-2248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귀에 익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익숙한 것이 곧 그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나 지식으로 아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체험과 실천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자기 부인’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수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입학 자격과 같은 것입니다. 졸업 자격이 아니라 입학 자격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할 때 ‘따라오려거든’은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신 ‘내 뒤로’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 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야 할 우리가 앞에서 이끌고 가려는 모습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정확히 같이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입니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세 번째로 한 말에 담겨 있습니다(마 26:74).

여기서 ‘모른다’라는 단어가 ‘부인한다’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 단어입니다.

“그를 전혀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말을 방향을 바꿔 자신에 대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모른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내 뜻과 권리와 방식을 고집하는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등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개선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잘 관리하고 다듬으라고,

나쁜 부분을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인하라, 절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부인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금욕이나 자존감을 파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아만큼 고약한 것이 없습니다. 괴롭힐수록 더 강해지고, 또 잘 해줄수록 더 망가집니다. 도대체 우리의 자아는 스스로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어떤 교육으로도, 어떤 수행으로도 우리의 자아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라, 자신을 향하여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의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것이라고 우길 수 있는 의지를 주인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고전 3:23).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말린 것은 애정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서 있던 자리를 보면 예수님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말씀은 “내 뒤에 서라”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설 자리를 알려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성도들이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일이라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행동이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에서도 나타났다면, 우리 가운데서는 얼마나 더 자주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봉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은 자기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영적 훈련은 할수록 자아가 더 단단해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다음 걸음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은 손에 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24절 후반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친숙합니다. 이제 십자가는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친숙해지면서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에게 떠오르는 십자가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의 모습입니다. 되돌아오지 못하는 발걸음입니다.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할 때 흔히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생스러운 일들이라고 해석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자기 십자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감수하는 대가’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감수하게 되는 손해와 오해, 좁아지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종양, 영혼의 문제를 수술하시려고 깊이 칼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 길에 놓인 십자가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날마다’라는 단어가 덧붙여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기 십자가에 붙들어 매는 것은 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날마다’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체험으로 자아가 사라지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갓난아기가 하룻밤 자고 나면 30대 청년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질서처럼 씨앗이 뿌려지고 서서히 자라듯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날마다’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한 번 은혜를 체험했다고 자아가 완전히 부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정입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죽음을 우리 옛사람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롬 6:6).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 선언 위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지, 자신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며 수고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우리의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되고 율법주의가 됩니다. 복음의 은혜 없이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자기를 짓누르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부인이 없는 은혜를 추구하는 것은 분회파가 말한 ‘값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잃어버림이 아니라 맡겨지는 것

25~26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를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잃는 것은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림이 아니라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면 다시 찾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찾는 것입니다. 온 천하, 온 세상과 비교해도 우리의 영혼이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는 다시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이 길을 가봤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자신에 대하여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순종의 길을 날마다 못 박힌 자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이 길은 내가 가본 길이다.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그리스도인이 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일까?

대화 중 누군가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우리는 다원주의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주관적 의견, 흔히 ‘나의 진리’라고 불리는 것이 곧 진리라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신의 종교적 견해와 개인적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가 될까 두려워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망설임은 많은 사람이 진리의 본질과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 저지르는 중대한 오해를 드러낸다.

기독교가 객관적으로 ‘참’이라면 우리는 예수에 관한 진리를 기꺼이 나누고 싶어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다면,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기독교 신앙은 정의상 강요될 수 없다. 회의론자들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든 기독교는 결코 무력이나 강제로 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다. 기독교는 설득력 있는 전도를

통해 성장했고,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강요로 이루어진 선택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누군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말 그대로 진정한 선택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낳는 참된 믿음, 곧 그런 신뢰는 무력이나 강제 없이 자유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참된 신앙을 찾으신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 신앙은 정의상 강요될 수 없다.

둘째, 기독교는 과자가 아니라 치료제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에 대해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힘을 낭비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길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초코칩 쿠키를 좋아한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할 수 있다. 우리는 디저트 취향이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 진리 주장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결핵으로 죽어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스피린을 치료제라는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 치료제, 곧 이소니아지드가 들어간 결핵 치료제 조합이 단순한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에

게 이해시키기 위해 시간을 쓸 것이다. 이소니아지드 같은 치료제는 주관적 의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참이다. 기독교가 참이라면, 그것이 참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이소니아지드가 결핵을 치료하듯이, 기독교는 우리의 영적 죽음을 치료한다.

많은 사람이 다른 종교적 치료제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마치 당신의 가족이 잘못해서 아스피린을 더 선호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세계의 종교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구원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한다. 그것들은 모두 틀릴 수는 있지만, 모두 맞을 수는 없다. 그것이 바로 서로 모순되는 주장들의 성격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과자에 관한 주관적 의견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죽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치료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고 잔인하며 악한 일일 것이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열정을 나눌 권리가 있다. 당신의 친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노래, 또는 스포츠팀에 대해 말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가?

그들의 열정이 당신에게 동의하도록 강요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의 열정을 나누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열정이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열의를 나눌 권리가 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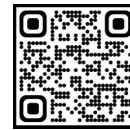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참이라면 무한히 중요하다. 기독교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은 그저 적당히 중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영화에 대한 흥분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한 열의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기독교의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기독교 신앙은 정의상 강요될 수 없다.”

“기독교는 과자가 아니라 치료제다.”

“모든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열정을 나눌 권리가 있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교육

무너진 교육, 기독교 세계관으로 회복



박은혜 성도
(강남A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청소년 마약, 교권 붕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 학교 현장의 민낯을 그대로 들춰

냈기 때문이다. “실제는 이것보다 더하다”라는 대중의 반응은 우리가 마주한 교육의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준다.

이러한 교육 붕괴의 심층에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창세기> 이래로 인간을 왕의 자리에 앉힌 인본주의는 현대에 이르러 더욱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발전되었다. 이 사상들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로만 이해하게 했고, 생존 경쟁과 효율을 인간 존재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했다. ‘무엇이 옳은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지웠을 뿐 아니라, 보편적 도덕보다 개인의 감정과 권리를 우선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만들었다.

교육의 위기 앞에서 사회는 그 원인을 법과 제도의 미비로 돌리며 처벌 강화와 매뉴얼 제정을 외친다. 그러나 규제 중심의 접근은 교육 주체들의 책임 공방과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뿐, 본질에는 관심을 둘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 정부는 정책 뒤에, 학교는 매뉴얼 뒤에, 교사는 법률 뒤에, 학부모는 권리 뒤에 숨게 되고, 학교와 학생은 관리 대상이 될 뿐이다.

얼마 전 현장학습을 둘러싸고 벌어진 교사, 학부모, 교육청의 날 선 공방이 그 한 예이다.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동안 그 누구도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어른들이 각자의 권리를

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사회 영역과 그 안에 속해 있는 개인에게도 같게 적용된다. 우리의 교육 현상이 경험하고 있는 혼란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주체들이 영역의 고유한 책임과 경계 및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본질은 제도나 교육 시스템의 위기가 아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세계관의 위기다. 그렇다

“교육을 살리는 것은 정교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교육의 회복은 결국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에서 시작되며, 그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로 이어진다.”

주장하는 동안, 정작 아이들은 배움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권리로부터 소외된 것이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에 따르면 하나님은 가정, 교회, 국가, 학교 등 사회 각 영역에 고유한 권위와 책임을 부여하셨다. 각 영역은 서로를 지배하거나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께 직접 책임을 지며 서로 협력하는 관계다.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는 섬김을 위한 것이며, 모든 권위에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이러한 원

면 교육의 회복은 제도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대신 하나님이 각 사람과 공동체에 맡기신 책임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된다.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교사는 교사의 책임을, 학교는 학교의 책임을, 국가는 국가의 책임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교육은 본래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교육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잠 1:7)임을 배우고,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발견해 세상 속에서 하나

님 나라를 드러내는 청지기로 살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다.

복음은 죄 사함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넘어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으로 삶을 돌이켜 회복하는 능력이다. 교회가 먼저 기독교 세계관을 회복하고, 사회 각 영역의 책임을 일깨울 때, 학교 역시 다시 사람을 세우는 공간이 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교회 안에서만 소비되는 지식이 아니라 가정, 학교, 일터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기준이다. 이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의 그 어느 곳에서든,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교육 현장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믿음의 교사들이 소명을 잃지 않고, 성경적 교육관을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기도도 지원해야 한다.

교육을 살리는 것은 정교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교육의 회복은 결국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에서 시작되며, 그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로 이어진다.

NGO 메디엑세스 시온팀 말라위

하나님의 사랑, 끝김이 없다

시온팀, 3일 동안 진료 1,203건, 수술 24건

NGO 메디엑세스 소속 시온팀(이하 시온팀) 21명이 지난 7월 3일(금)부터 12일(일)까지 아프리카 말라위로 의료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의료 지원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시온팀은 그저 순종하며 국경을 넘었고, 생명 존중 가치를 실천했다. 시온팀의 그 헌신적인 여정에 동행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참으로 보고 싶었다. 꿈에서라도 말이다. 지난해에도 시온팀은 아프리카 말라위로 의료 아웃리치를 왔었다. 그때 말라위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지켰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말라위(Malawi)는 동남부 아프리카에 자리 잡고 있다. 한국보다 영토가 약 18% 크고, 인구는 약 2천2백만 명이다. 1인당 명목 GDP(2026, IMF)가 \$508로 아프리카 전체 54개국 중에서 52위다.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한계, 80%가 넘는 높은 농업 의존도,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태풍 피해 누적 등이 경제 성장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람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랑을 증명하고 있다. 서울영동교회 정유근 장로가 그 첫 번째 주인공이다. 정 장로는 해운회사 ‘대양상선’을 경영하고 있었다. 회사의 수익이 엄청났다. 정 장로는 하나님의 뜻은 본인만 잘사는 게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2008년 3월, 개인재산을 들여 말라위 수도 릴롱게에 현대식 종합병원 ‘대양누가병원’을 개원했다. 말라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지 의료 인력 양성과 인재를 키우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0년 3년제 간호대학 설립, 2014년 ICT대학 설립, 2022년 경영대학을 추가로 설립했다. 대양누가병원은 현재 180병상 규모로 성장했다. 연간 환자 5만 명을 치료하는 말라위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으로 우뚝 섰다.

말라위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 있다. 대양누가병원에 파견된 TIM(두란노국제선교회) 소속 제니퍼 전 선교사(치과의사)다. 그녀는 이곳에서 2년 반 동안 사역하고 있다. 대양누가병원 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아동부와 청소년 사역, 대양대학교 학생들의 제자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도 뭉쳤다!
시온팀, 제니퍼 전 선교사, 대양누가병원



▲ 환자를 위해 기도 중인 송기선 장로, 박용원 장로, 신은주 간호사(왼쪽). ▲ 켈로이드 환자(오른쪽 위). ▲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음세체마을 주민들(오른쪽 아래).

시온팀, 제니퍼 전 선교사, 대양누가병원이 이번에도 뭉쳤다. 작은 힘들이 모였더니 큰 힘으로 변했다. 시작은 지난해 말라위 아웃리치였다. 무기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였다. 시온팀은 전문적인 의료 인력을, 제니퍼 전 선교사는 가교역할을, 대양누가병원은 모든 제반 사항을 준비했다. 사역지는 대양누가병원에서 관리하는 음세체마을 보건소였다. 지난해는 이곳에서만 진료와 치료를 했는데, 올해는 범위를 확대했다. 대양누가병원의 수술실을 빌려 수술을 한 것이 지난해 아웃리치와 올해 아웃리치의 가장 큰 차이였다. 올해 말라위 아웃리치에 참여한 의료인도 역대급이었다.

올해 시온팀은 의사 강희선(이비인후과), 김규환(정형외과), 노정숙(산부인과), 박용원(산부인과), 서효민(가정의학과/피부과), 송기선(산부인과), 이백권(성형외과), 이현섭(치과), 정금희(마취통증의학과), 정찬희(비뇨기과), 진현주(소아과), 최현수(산부인과), 약사(조상은), 간호사(이은숙, 신은주), 의공사(성동환), 비의료인(노경철, 노희진, 신진화, 이한규 목사)로 구성되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사역 첫날, 사역지가 대양누가병원과 음세체마을 보건소로 나뉘었다. 대양누가병원에서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수술할 환자들을 의사들이 면담하며 계획을 세웠다. 곧바로 정형외과 수술을 한 환자도 있었다. 음세체마을 보건소에서는 나머지 의사와 팀원들이 주민들을 진료했다. 음세체마을 주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대기하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곳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차비도 없는데, 의사를 만나고, 약을 처방받는 비

용은 그들의 몇 달 치 생활비와 맞먹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의사가 찾아온다는 것만으로도 가뭄의 단비였다. 그 간절한 마음을 잘 알기에 시온팀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위로하며 진료했다. 진료를 마친 뒤에는 미리 연습한 현지어 “Mulungu amakukondani”(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말하며 축복했다.

둘째 날, 음세체마을 보건소와 대양누가병원에서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다. 성형외과의 첫 번째 수술이자 고난도 수술도 잡혀있었다. 환자는 44세 남성인데, 얼굴에 거대한 켈로이드(Keloid)가 자라 있었다. 제거 수술을 받았었는데, 전보다 더 크게 재발했다. 딱 보기에라도 오른쪽 얼굴과 귀 부위에 엄청난 크기의 켈로이드가 있었다. 왼쪽 얼굴과 몸에도 크고 작은 켈로이드가 가득했다. 얼굴 켈로이드는 한국에서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아프리카인들은 체질적으로 켈로이드가 잘 생긴다고 한다. 그런데 이 환자는 크기가 매우 크고, 켈로이드 표면에 궤양(ulcer)이 생기는 특이한 사례였다.

이백권 팀장(성형외과)이 환자를 다시 살피고, 기도하며 수술을 시작했다. 5시간 예상한 수술이 어느덧 점심을 지났고, 무려 8시간이나 걸렸다. 이백권 팀장은 예상보다 힘든 수술이었다고 털어놨다.

“켈로이드가 매우 크고, 흉 조직이 아래쪽(얼굴 쪽)으로 매우 깊어서 제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출혈도 심했고, 수술 이후 얼굴 모양을 고려하고, 안면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수술했습니다. 현지 수술방의 열악한 조건도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곳의 의료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 말라위 국립병원은 진료와 수술이 무료인데, 대기가 엄청나고, 고난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한참 부족하다. 평생을 기다려도 수술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태반이다. 선교사

이자 의사인 대양누가병원 황하수 부원장은 시온팀이 수술한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다.

“국립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환자들이 몰릴듯이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도 수술은 고사하고, 간단한 수술조차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온팀의 의사 선생님들이 말라위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선물하셨습니다.”

이날 성형외과를 포함해서 총 9건의 수술을 했다. 시온팀은 환자들의 고통을 잘 알기에 한 시도 쉬지 않고 수술을 이어갔다.

셋째 날, 마지막 의료 사역을 했다. 마지막 의료사역이라는 소문이 났는지 전날과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 대양누가병원에서도 마지막 수술을 준비했다. 시온팀은 더 바쁘게 움직였다. 한 명이라도 더 진료하고, 한 명이라도 더 수술하려고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는 시간도 절약했다. 준비한 약과 도구가 다 떨어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 섬겼다. 아니, 전심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곁에서 시온팀의 사역을 지켜본 황하수 부원장이 옆드려 절을 하고 싶다고 했을 정도였다.

“지난해에는 못 오셨던 치과 선생님이 오시고, 의공사(Biomedical engineer)도 오셔서 의료 장비를 수리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시온팀이 두 번이나 이곳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양누가병원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재정이 적지입니다. 약품 지원, 의료기기 지원, 자비량 의사의 장기 체류가 가능해지도록 기도해주시고.”

시온팀은 올해 말라위 아웃리치에서 3일 동안 진료 1,203건, 수술 24건을 했다. 그 헌신은 모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엔에서의 동성애와 성정체성 논의 동향

‘성평등’을 ‘동성애 평등’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한충희 목사
(TIM(투란노국제선교회) 본부장)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OGI)’은 국제사회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룰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은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성적 끌림과 호감을 느끼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개념을 의미한다. ‘성정체성(Gender Identity)’은 성적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남녀의 구분을 넘어서는 ‘LGBT(Lesbian(레즈비언), Gay(게이), Bisexual(양성애자), Transgender(트랜스젠더))’ 개념이 도출된다.

‘양성평등’ 또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며, 여성의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 확대, 역량 강화 등 여성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는 동성애와는 무관하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여권 신장’의 의미로 사용된다.

국내 동성애 지지자들은 ‘남녀(양성) 평등’을 ‘성평등’으로 표현하며 이를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평등하게 인정하는 개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성평등’은 영어로 ‘Gender Equality’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남녀 간 평등과 여성의 권익 신장을 의미하는 용어로, 동성애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2015년 채택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17개 목표 가운데 다섯 번째 목표는 양성평등이며, 이 목표에 포함된 9개 세부목표(Target) 모두 여성의 권익 신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동성애 관련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SDG 전체(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에도 동성애를 인정한다거나 존중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내 논의의 전개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other status)’에 따른 어떠한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다른 지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통상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성애까지 시사하는 것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제16조 제1항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제16조 제2항에서는 남녀가 이루는 가정을 사회의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집단 단위’로 규정하고,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

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주요 내용, 즉 차별금지과 남성과 여성의 결혼 및 가정에 관한 규정은 1966년에 합의되고, 1976년에 발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포함되어 국제법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유엔에서는 1994년 ‘Toonen v. Australia 사건’(호주의 동성애 처벌법이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건)을 계기로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동성애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유엔 세계여성회의와 동성애자들이 채택한 죽자카르타 원칙 등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2006년과 2008년에는 이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반대하는 국가들이 각각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입장 차가 드러났다. 2010년 이후에는 주로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과 폭력 문제를 다루는 결의와 보고서가 채택되고, 독립전문가가 임명되는 등 관련 논의가 확대되었다. 동시에 가정의 보호와 자녀의 권리를 강조하는 결의도 함께 채택되면서 국제사회는 인권 보호와 전통적 가족 가치 사

중시하지만, LGBT 권리 인정 문제에서는 회원국 간 견해차가 커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별도의 총회 결의 없이 인권이사회 보고서만 채택한 상태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에도 동성애 관련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동성애 문제는 이를 지지하는 서구권(미국·유럽·캐나다·호주·뉴질랜드)과 반대하는 아랍권·아프리카·러시아·중국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이 주도했던 ‘올림픽 기간 중 전쟁과 분쟁 중지 결의’ 협상 과정에서도 동성애 성향 선수의 보호와 권리 인정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당시 필자가 유엔 차석대사로 협상에 참여했는데, 결국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표현 대신 중립적이고 모호한 문구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유엔이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제기구 내의 이러한 흐름은 기독교계가 마주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유엔총회 차원의 결의는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동성애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금지하는 것과
LGBT의 권리와 동성결혼 인정은 별개의 문제다.”

이에서 다양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반대하는 국가들 사이의 입장 차는 계속 이어졌다. 현재 까지도 유엔총회 차원의 동성애를 인정한다거나 반대한다는 명시적인 공동의 결의는 채택되지 않았다.

유엔 내 논의의 네 가지 핵심 쟁점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립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치열한 논리적 쟁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유엔 내 논의는 크게 네 가지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세계인권선언〉(유엔헌장)과 동일한 권위로 인정)은 인간의 평등과 남성과 여성의 결혼 및 가정을 중심 가치로 삼고 있다.

둘째, 동성애 지지 측은 사형 등 극단적 처벌을 인권 문제로 제기하면서 이를 동성애 인정 문제와 연결하려 하지만, 과도한 형벌에 대한 반대와 LGBT 권리 및 동성결혼 인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 존재한다.

셋째, 각국의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는 것과 보편적 인권 규범을 적용하는 것 사이의 관계, 즉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넷째, 유엔총회는 과도한 차별금지 원칙은

성경적 관점과 제4차 로잔대회의 〈서울선언〉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동성애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제시한다. 〈창세기〉, 〈레위기〉, 〈로마서〉, 〈고린도전서〉 등 여러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성과 여성의 창조와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 의한 가정을 그 기초로 제시한다.

〈창세기〉 1장 27~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였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4~6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현대 다원주의, 자유주의, 자유선택 사상, 인본주의, 상대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및 인간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은 이러한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로마서〉 1장은 사람이 이성인 동성과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순리(natural)를 역리(unnatural)로 바꾸었다고 말하면서,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창조 질서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자연스러움과 행복, 기쁨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동성결혼커플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성장 과정에서 아이가 정상적인(자연스러운) 보통의 가정과는 다른 가정에 있다고 인식하면서 겪게 될 혼란이 상당할 것이기에 이 문제는 아동의 인권과 권리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4차 로잔대회에서 발표한 〈서울선언〉은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섹슈얼리티’ 항목에서 총 15개 조항을 통해 세계 복음주의 진영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 부분은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가장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며, 개인이 스스로 젠더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한다.

둘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배타적 결합이며, 동성결혼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교회 내 모든 시도를 애용하게 여기고, 결혼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원리에 기초한다고 선언한다.

셋째, 따라서 동성 간 성관계는 죄라는 결론에 이르며, 복음을 통해 회개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 건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목회적 돌봄과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SOGI)’은 동성애와 관련된 개념이며, ‘양성평등’이나 ‘성평등’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남녀 평등 개념으로 동성애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성평등’을 동성애 평등의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16조는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1976년 발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그대로 포함되었다.

유엔에서는 1994년 이후 동성애 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다. 2006년 동성애자들에 의한 죽자카르타 선언 이후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2011년 차별 관행 보고 결의, 2014년 차별 대응 결의, 2016년 독립전문가 임명 등 주로 과도한 처벌 등 차별금지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성애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는 회원국 간 의견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으며, 유엔총회 차원의 별도 결의는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아울러 동성애에 대한 사형 등 과도한 처벌 금지와 LGBT의 권리 또는 동성결혼 인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녀의 결혼에 기초한 가정의 중요성과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고, 2014년 유엔총회의 가정 보호 결의를 근거로 동성애 반대의 대응적 서사(Counter-narrative)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서울선언〉의 동성애 관련 규정은 포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대응 논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초복맞이 어르신 영양삼계탕 잔치

양재 이웃사랑팀, 양재1동 거주 어르신 56명 초청



초복맞이 영양삼계탕을 드시는 어르신들.

양재 이웃사랑팀이 7월 10일(금) 오전 11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양재1동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초청해 ‘초복맞이 어르신 영양삼계

탕 잔치’를 했다. 양재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과 양재1동주민센터가 주관했다. 이날 잔치에는 주공노인정과 암산노인정 어르신 56명이 참석

했다. 서초구청장, 서초구의원,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부녀회 회장 등 기관장들도 참석했다.

초복맞이 어르신 영양삼계탕 잔치는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담당) 말씀, 최상미 권사 하모니카 연주, 양재시니어공연팀 만들어진 연주, 점심 식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김진옥 권사(서초B공동체)가 봤다.

서광열 팀장(양재 이웃사랑팀)은 “올해 함께하신 어르신들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며 내년 잔치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온누리 법조인 모임(OLF) 여름예배

7월 21일 오후 6시 30분 서빙고 한동홀

‘온누리 법조인 모임(Onnuri Lawyers Forum, OLF)’ 여름예배를 7월 21일(화) 오후 6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드린다. 이재훈 위임목사, OLF 리더십, 온누리교회 법조인 성도 등이 참석한다.

OLF 여름예배에서는 식사 및 교재, 이재훈 위임목사 주제 설교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OLF는 온누리교회 법조인 성도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기독교 법조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소명을 공유하며 정기예배, 포럼, 법조인 맞춤형 집회 등을 하고 있다. 법조인이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최태형 변호사(010-3281-0735)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도시교회선교팀 동역자 찾습니다!”

1다락방1사역 공동체, 시설 보수 재능기부자 모집

사회선교본부 도시교회선교팀에서 도시미자립교회 시설 보수를 위한 재능기부자를 상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전기, 설비, 타일, 도배, 장판, 페인트, 목공, 간판, 인테리어 등이다. 관련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업계 종사자, 은퇴 기술자 등 기술 봉사를 희망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시미자립교회와 결연해 1다락방1사역을 할 공동체도 찾는다. 현재 북누리, 성북, 강남B, 강남D, 관악금천, 분당B, 강촌, 마포, 동대문중앙

공동체 등 성인공동체 9곳이 1다락방1사역으로 도시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있다. 정기적으로 도시미자립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있다.

수도권 6개 교회와 군산, 부산, 양산, 김해, 거제 등 비수도권 9개 도시미자립교회는 함께할 공동체를 기다리고 있다. 1다락방1사역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10-2269-1591

/ 홍하영 기자

제이홈-온누리울타리 특별 세미나

7월 19일 오후 5시 서빙고 두란노홀

제이홈과 온누리울타리가 ‘한 생명을 품는 믿음의 실천’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7월 19일(일) 오후 5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신관 지하 1층)에서 열린다. 이종락 목사(주사랑공동체교회 담임목사, 베이비박스 설립, 한국임양홍보회 이사)가 말씀과 간증을 전한다. 입양, 가정위탁, 보육원 아동 결연,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참여 방법 등도 안내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하단 QR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름, 공동체, 관심 사역 등을 기록해야 한다.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오창화 집사(온누리울타리 팀장)는 “고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대전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 모집

대전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30일(목)과 8월 1일(토) 대전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7월 30일은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8월 1일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7월 30일까지 전화(010-3489-2080)로 하면 된다. 이혼이나 별거 중인 남녀, 소송 중인 남녀

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타 교회 성도도 신청 가능). 30명 선착순 모집한다. 등록비는 없다.

대전드림어게인스쿨은 이혼과 별거,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3489-2080, 010-2539-5665

/ 남현영 기자

반갑다, 친구야!

온누리M미션, ‘몽골 하비스트 캠프’ 개최

온누리M미션이 지난 6월 26일(금)과 27일(토)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하비스트 캠프’를 개최했다. ‘반갑다, 친구야!’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목회자와 관계자, 몽골 성도 등 314여 명(26일 161명, 27일 153명)이 참석하고, 45명이 결신했다.

몽골 하비스트 캠프 첫날에는 호이아 전도사(은혜이슬교회) 간증, 김영환 장로(온누리M미션 대표장로) 대표기도, 생명샘교회 위십댄스팀, 장근희 교수(싱어송라이터), 어유나 목사(영원한 생명교회)가 특순, 김태완 목사(온누리M미션 담

당) ‘친구야, 반갑다’ (요 21:3-13) 설교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둘째 날(27일)에는 맞춤형도전집회를 했다. 천드마 목사(신사도행전교회) 대표기도,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 ‘가장 귀한 친구’ (요 15:13) 메시지, 결신의 시간, 셀레브레이션 등을 했다.

베르해 목사(온누리M미션 몽골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면서 “몽골 하비스트 캠프를 위해 수고해주신 온누리교회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온누리 교육선교스쿨 7기 참가자 모집

온누리 교육선교스쿨 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누리청소년센터 2층 감성합창실에서 진행된다.

교육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8월 1일(토)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이나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선교사 무료).

온누리 교육선교스쿨 5주 차에는 교육선교 현장 탐방을 한다. 문의: 010-4738-9094



구립꿈누리어린이집 원아 및 교직원 모집

구립꿈누리어린이집 원아 및 교직원을 모집한다. 원아 모집 대상은 0세(2025년생), 1세(2024년생), 2세(2023년생) 영아다. 입소 대기 신청은 7월 30일(목)까지 전화로 하면 된다.

교직원은 보육교사(담임) 4명, 보조교사 2명, 연장반 교사 1명을 선발한다. 2·4년제 유아교육과 및 보육 관련 학과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력서(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7월 31일(금)까지 제목을 ‘지원분야-성명’ (예: 보육교사-홍길동)으로 해서 이메일(kseung05@naver.com)로 보내면 된다. 구립꿈누리어린이집은 오는 9월 온누리청소년센터 1층에 개원한다.

문의: 02-6953-5845



故 하용조 목사 디지털 자료 모집

7월 26일까지 QR코드 또는 수거함

CGN 풍당에서 ‘영상 아카이빙 프로젝트’에 사용할 故 하용조 목사 디지털 자료를 찾는다. CGN 풍당이 준비 중인 ‘하용조 목사 특별관’ 제작의 일환이다.

하용조 목사의 말씀 강해, 설교 영상, 음성 파일 등을 소장하고 있는

성도들은 7월 26일(일)까지 QR코드로 신청하거나 서빙고온누리교회 로비와 양재온누리교회 지하 1층 원형카페에 설치된 수거함에 USB, DVD 등 실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792-0691



결혼비전스쿨 With4U 참가자 모집

사단법인 행개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결혼비전스쿨 With4U’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대학로 이룸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QR코드로 하면 된다. 선착순 40명 모집한다. 회비는 10만 원.

결혼비전스쿨 With4U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비전으로, 사랑과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정에서 실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결혼과 가정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조용호 교수(전주비전대학교), 강미향 목사(두란노부부학교 전문강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5059-4459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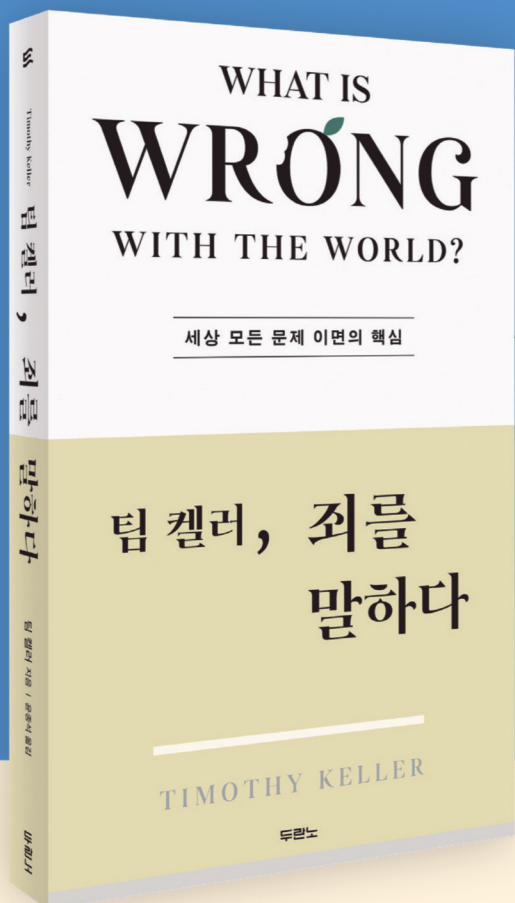
[illegible]

1만 독자가 먼저 선택한 베스트셀러!

지금, 모두가 읽어야 할 팀 켈러

팀 켈러, 죄를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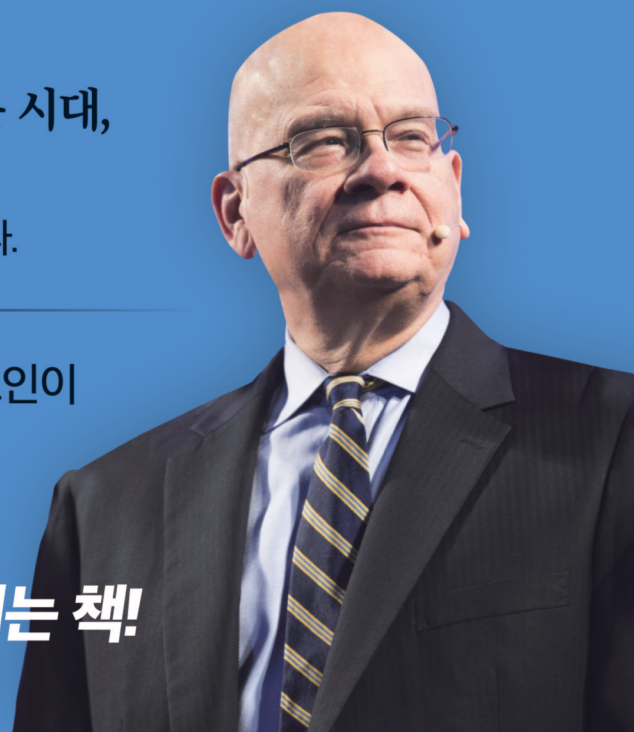
출간 2개월만에 11쇄 돌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
팀 켈러와 함께 불편하지만
위대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지금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함께 읽어야 할 책.

함께 읽을수록
복음이 더 선명해지는 책!



왜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 ☒ 시대를 읽기 위해
- ☒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기 위해
- ☒ 복음을 다시 붙들기 위해
- ☒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먼저 읽은 독자들이 말하는 《팀 켈러, 죄를 말하다》

“죄라는 주제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mu***** | 교보문고

“내 안에 도사린 그 어떤 무서운 죄보다도 나를 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

fo***** | 교보문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까지 이어져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li***** | 교보문고